

빛과 경사、 새로운 거점

모두의 마을활력소

김세진
지요건축사사무소 대표

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5-7, 85-38, 81-380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 대지면적 | 833.30m ² |
| 건축면적 | 250.35m ² |
| 연면적 | 532.60m ² |
| 건폐율 | 30.04% |
| 용적률 | 63.91% |
| 규모 | 지상 4층 |
| 높이 | 13.80m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시공 | (주)도화엔지니어링 |
|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주변의 콘텍스트와 연계되는 마을활력소

모두의 마을활력소는
개방의 대상과 방식,
반투명함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 고민한 결과이다.
그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도시의 맥락을 살피는,
그다지 새롭지 않고 일반적
것에서 시작한다.



모두의 마을활력소 측 전경



상 반투명한 건축의 수직면
하 노해로와 모두의 마을활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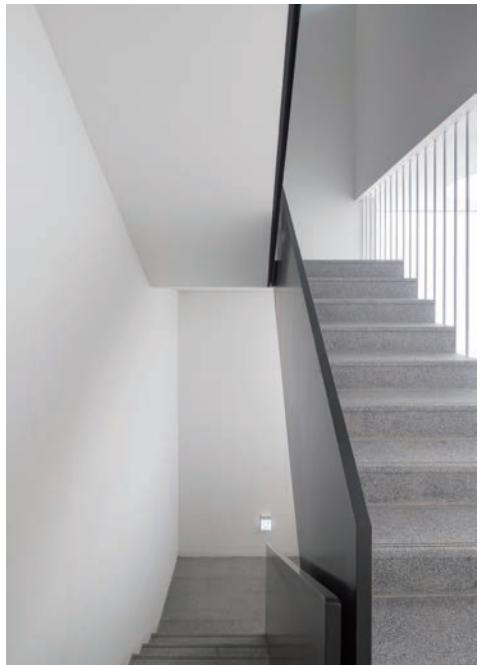
2층 레벨에 위치한 주출입구와 공영주차장



무주(無柱)공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모두의 라운지



상 마을활력소 공용공간
하 모두의 리운지와 반투명의 수직면



상·하 각 층을 연결하는 개방적인 계단

모두의 마을활력소의 얼굴은 희고 말갛다.
희고 말간 표정은 질의 응대, 조정, 협력이라는
마을활력소의 고유한 기능과 맞닿아 있다.



빛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수직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모두의 마을활력소는 거점형 마을공동체 시설이다. 자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공동체 시설과 협력하며 각 시설의 질의에 응대하거나 조정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 시설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마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500제곱미터 남짓한 공공시설이지만 두 개의 공영주차장과 하나의 부설 주차장, 라운지, 방송국과 기록관, 다목적홀, 마을경제지원센터, 마을자치팀 사무실 등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다. 간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작업이 필요하였던 공영주차장은 기존과 같은 1층에 두고 모두의 라운지와 마을방송국은 2층에, 다목적홀과 쉼터를 3층에, 그리고 최상층에 지원시설을 집적한다.

◎
도
면
수



상 주변의 콘텍스트와 연계되는 마을활력소
하 모두의 마을활력소 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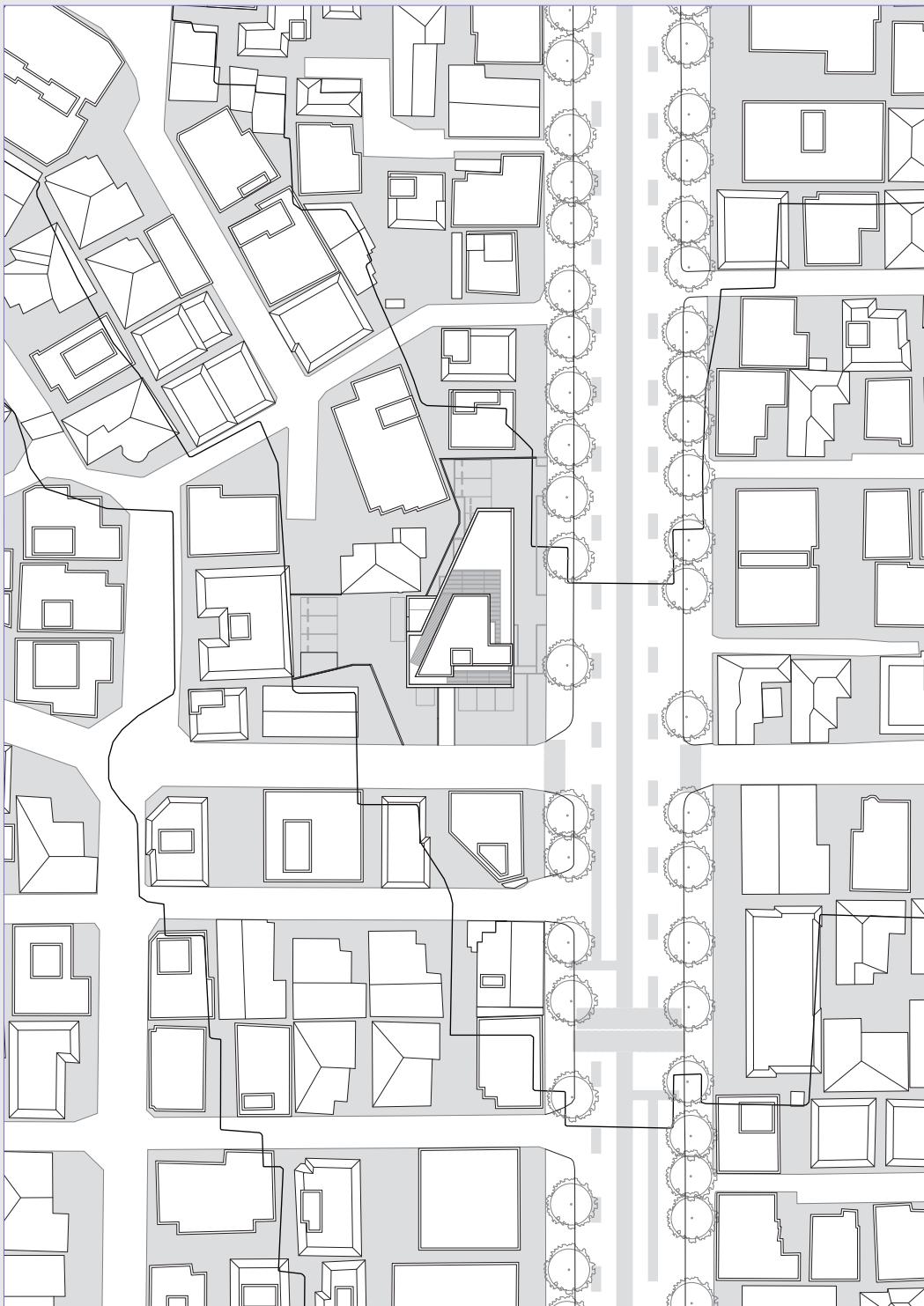
일반적이지만 스테레오타입은 아닌

열림과 투명함은 공공건축, 특히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의 스테레오타입이다. 본디 스테레오타입은 보편과 합리, 식상과 지루함을 동시에 가진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의 기본 성질이 열림과 투명함을 표준 이미지로 선택하게 만든 듯하다. 그러나 ‘과연 모든 공공건축이 열리고 투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비판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당연시되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생겨난다. 모두의 마을활력소는 개방의 대상과 방식, 반투명함의 의미와 작용에 대해 고민한 결과이다. 그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도시의 맥락을 살피는, 그다지 새롭지 않고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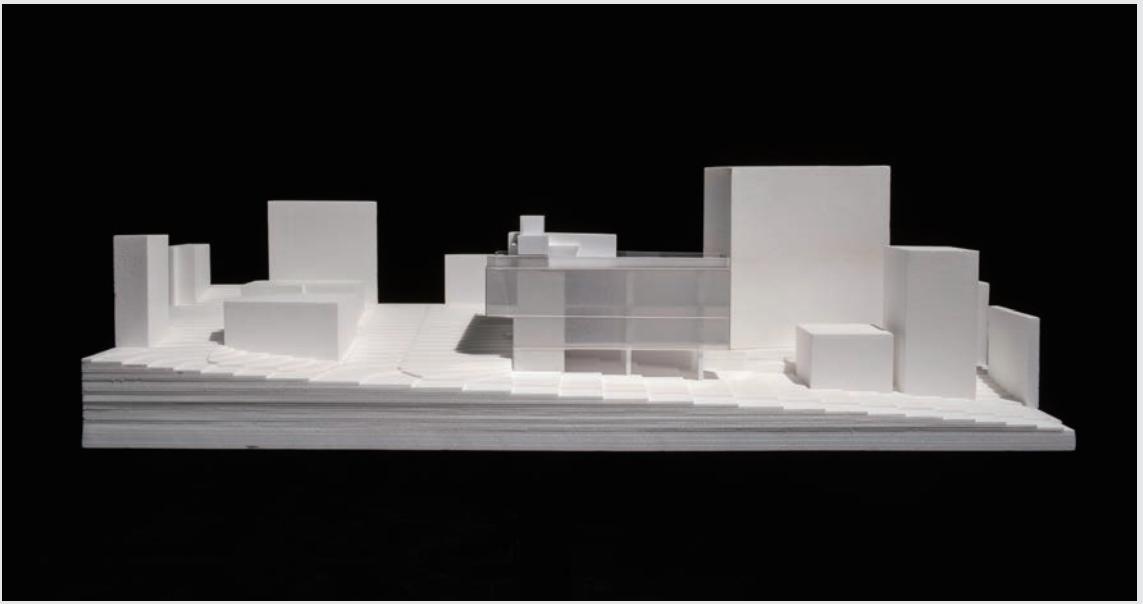
다르게 열린

맥락과 조건은 다각적으로 건축에 영향을 주지만 건축적 개념이나 심상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땅의 경사는 있는 그대로는 건축이 될 수 없으며 의도적 조정을 통해 건축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 프로젝트에서 건물의 각 층 바닥면 높이를 설정하는 과정은 곧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대지는 두 개의 길에 면한다. 동서 방향의 길은 그 일대의 주요한 4차선 도로이다. 공영주차장이 직접 연결될 만큼 평평하고, 주변 건축물은 가로에서 비슷한 길이만큼씩 이격되어 있다. 반면 남북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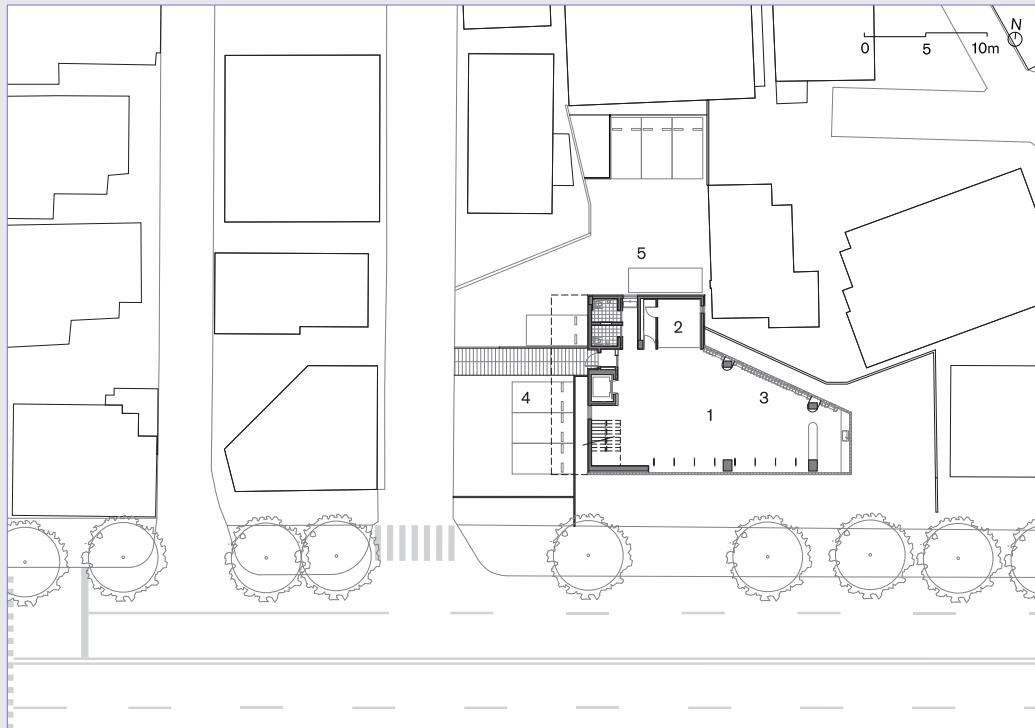


모두의
마을활력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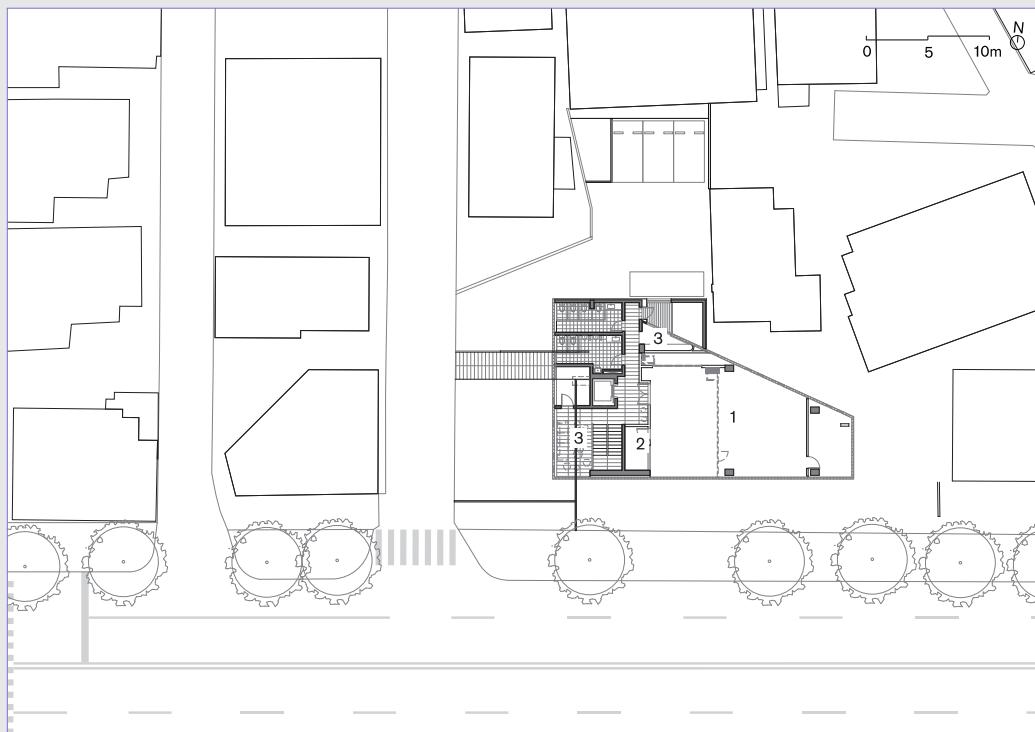


개념 모형

향의 길은 중앙선 없이 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마을 안쪽과 이어지는 경사가 급한 길이다. 계획의 필수 조건에 따라 기존 대지에 있던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였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소규모 건축물이 도시 가로에서 주차 기능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이곳 대지의 상황에서는 다르다. 즉 지형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필로티 위로 3.4미터 들어 올려진 2층 바닥면이 그대로 땅에 앉힐 수 있도록 레벨을 설정하는 일은 전형적이지 않다. 서로 다른 두 기준 레벨에 의해 기존 공영주차장과 덧대어진 시설이 수직적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열리는 방향이 길의 상황에 대응해 결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마을활력소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다. 각각은 건축 행위를 통해 조정되어 공존한다. 계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는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 도로의 경사, 즉 땅의 기울기다. 평평한 지형과 연결되는 1층은 차량이 출입하도록 내어 주었다. 사람에게 열린 마을활력소의 주출입구는 마을 안쪽 경사로와 연결되어 2층 레벨에 위치한다. 땅의 기울기와 대지의 높이 차이, 그리고 목적을 달리하는 대상과 기능은 모두의 마을활력소가 공공건축이 열리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겨 나도록 한 요인이다.



2층 평면



3층 평면

다층적인 조건에 대응하는

설령 간단해 보이더라도 건축은 복잡한 조건에 대응한 결과이다. 마을활력소의 1층 필로티, 2층 지내력 기초와 동측 캔틸레버, 3층 양방향 캔틸레버, 최상층에 한해 적용된 벽식구조는 요구되는 면적이나 일조사선과 기능적 충고를 맞추기 위한 제안이다. 마을활력소의 불륨은 계획 초기에 설정한 면적, 개별실에 요구된 기능, 건축선과의 이격거리나 일조사선 등 관련 법규의 제한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 하지만 그것이 바로 건축이 될 수는 없다.

모두의 라운지는 마을활력소 시설 중에서 가장 큰 바닥면적이 필요함과 동시에 마을방송국과 직접 연계하여야 하는 조건이 요구되었다. 그렇기에 이 시설이 위치한 지상 2층은 남북측 모두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 영역을 설정하고, 동측으로는 캔틸레버 구조를 적용하여 바닥면적을 확장한다. 캔틸레버 형식은 구조적 실험과 그 실현에서 비롯되었다가보다는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구획과 마을활력소 구조모듈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다. 아울러 마을활력소로 진입하는 홀은 간결하게 계획하고, 화장실은 장애인용을 배치하여 면적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방적인 계단을 제안하여 단일 공간인 모두의 라운지의 원활한 작동을 돋는다. 모두의 라운지 북측 서가는 마을기록관도 겹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기둥을 곡면강판 마감재로 구성하여 모두의 라운지가 무주(無柱)공간과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지상 3층은 양방향 캔틸레버 구조로, 서측 방향으로도 캔틸레버를 제안함으로써 한 단계 더 확장된다. 절대적인 바닥면적은 지상 2층에 비해 약 30제곱미터 큰 수치를 가지고 있으나 서측 캔틸레버 영역에 마을쉼터, 공용화장실 등 마을활력소 공용공간을 집적하여 전용공간의 쓰임을 높인다. 모두의 라운지 상부에 위치한 다목적홀은 마을행사, 소규모 공연, 교육과 강연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2개의 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빙월을 계획한다. 지상 3층의 높이는 일조에 관한 규정에서 하나의 수직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9미터 높이에 근접하게 맞추어 계획한다.

계획대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건축물의 높이

◎부록



상 노해로와 모두의 마을활력소
하 2층 레벨에 위치한 주출입구와 공영주차장



◎
문화
예술
도시
건축

상 무주(無柱)공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모두의 리운지
하 모두의 리운지와 반투명의 수직면

는 대지경계선에서 정북 방향으로 이격된 거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지상 4층의 외벽선은 지상 3층의 외벽선에 비해 북측으로부터 더 이격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이 만들어 낸 이러한 조건을 주변 콘텍스트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마을활력소 계획에 담겨 있다. 마을활력소 주변 건축물 대다수는 평평한 옥상바닥에 계단탑이나 옥탑이 설치된 형상을 가진다. 마을활력소의 지상 4층은 계단탑이나 옥탑은 아니지만 평평한 지상 3층 위에 독립된 매스가 얹어져 있다는 점에서 주변 건축물과 매스의 구성방식, 형태와 조형에 있어 유사성을 지닌다.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양자가 일종의 ‘가족유사성’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마을활력소와 주변의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건축물군의 고유함, 나아가 도시 콘텍스트를 읽어내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시도가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되기 를 기대한다.

기능을 감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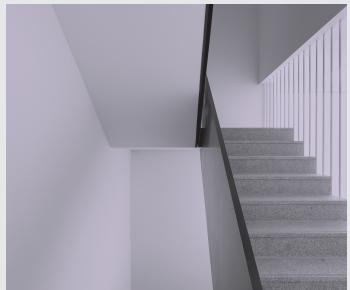
모두의 마을활력소의 얼굴은 희고 말갛다. 희고 말간 표정은 질의 응대, 조정, 협력이라는 마을활력소의 고유한 기능과 맞닿아 있다. 질의에 응대하며 조정하고 협력함은 어떤 것의 사이를 다루어 비슷함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반투명함은 투명과 불투명, 열림과 닫힘의 개념 사이에 존재한다. 일조의 여건과 내부 환경을 고려해 창을 내는 대신 반투명의 농도를 조정한다. 확장된 반투명의 감각은 시설의 기능이 가지는 가만하고 차분함을 은유한다. 반투명한 물성의 수직면은 폭 265밀리미터 기성재의 연속으로 구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는 빛과 은행나무의 그림자를 담는다. 한 슬래브당 한 세트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재료의 성질과 풍압을 고려해 최대 길이 4,650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각 층의 부재 길이를 결정한다. 반투명의 기성재는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슬래브에 걸어 부착해 진폭이 작지만 빛의 변화를内外부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밤이 되면 밝고 경쾌한 백색 외피가 빛을 담는 오브제로 바뀐다. 극적이기에 매력적인 순간이다. 그러나 반투명한 수직면은 그러한 극적인 찰나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 무엇이 바뀌는지 모를 만큼 미묘하고 세세하게 움직이는 일상은 영화와는 달리 스펙터클하지 않고 지루한 일의 연속일 것이지

만,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러한 일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렇듯 우리 삶처럼 작동하는 반투명 면의 이면에는 빛이 있다. 빛은 반투명함을 인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모두의 마을활력소에서 빛의 작용이 사뭇 신선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섬세하고 독자적인

공공건축은 종종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균질하지 않고 개별적이기에 섬세하고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의 마을활력소가 자신의 기능과 성격을 뚜렷이 하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모두의 장소’이기를 바란다. 공공건축은 지어질 때가 아니라 쓰일 때 비로소 시민에게 되돌아가 빛을 발한다.



상·중 각 층을 연결하는 개방적인 계단
하 마을활력소의 공용공간